

정의의 종

Vol. 27 2015. 7

발행인 이원우 | 편집인 김종보
151-743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6866 | Fax 02-889-7196
http://law.snu.ac.kr



2015학년도 법학대학원 입학식



2015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입학식이 2월 27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150여명의 법학대학원 신입생들은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 2page

신규 교수 임용

우리대학은 3월 1일자로 김복기 부교수, Benjamin F. Hughes 부교수, 전상현 조교수 3명을 신규 임용하였다. 김복기 부교수는 사회보장법을, Benjamin F. Hughes 부교수는 영미법을, 전상현 조교수는 헌법 강의를 맡게 된다.



김복기
부교수



Benjamin F. Hughes
부교수



전상현
조교수

제1회 학봉상 논문공모 및 연구지원

서울법대 학봉상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장학회가 후원하는 학봉상 논문공모·연구지원사업이 올해 8월 처음으로 논문과 연구계획서를 모집한다. 제1회 주제는 광복 70주년, 한·일 수교 50년을 맞이하여 '한일 문화교류와 양국관계의 미래'로 선정하였다. 논문 및 연구계획서 제출 기간은 8월 15일부터 8월 31일 까지이며, 총 상금은 1억원 내외이다.

문의

E-mail | hakbongprize@snu.ac.kr
우 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7동 209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학봉상 운영위원회사무국
전 화 | 02)880-2446
홈페이지 | http://law.snu.ac.kr/hb_award/

Contents

- 2-4 법대·법학대학원 소식
- 4-5 초청강연
- 5-7 연구소·센터소식
- 8 공개강좌 / 발전기금 출연현황

2015학년도 법학대학원 입학식



2015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입학식이 2015년 2월 27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이원우 법학대학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교수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이재민 기획부원장의 사회로 교수소개, 식사, 기념강연, 축하공연, 교가제창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원우 원장은 입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비전과 실력, 인성을 모두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당부하였다. “지금의 설레임을 기억하되 지나치게 성적이 매몰되지 말고 사회의 리더에게 필요한 실력을 함양”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경쟁보다는 동기들과 함께 성장하는 로스쿨 생활을 할 것을 부탁하였다.

또 이번 행사에는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경제법 학계와 실무계에서 명망이 높은 권오승 교수가 입학식 축하 연사로 나서 그 의미를 더하였다. 정년퇴임을 맞이한 권오승 교수는 법률가로서 첫 걸음을 내딛은 입학생들에게 “당장의 시험에 치중하는 근시안적 시야에서 벗어나 미래를 예견하는 통찰력을 갖출 것”을 주문하였다.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정신을 갖추고 한국의 성장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입학생들의 앞날을 축복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합창단 SPERO SPERA의 공연에서는 ‘하모니’라는 곡을 교수,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입학식이 끝난 후에는 각 지도반별로 조별모임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입학생은 법학전문석사과정 152명과 법학전문박사과정 8명을 더해 총 160명이다.

외국인학생 오리엔테이션



2015년 3월 9일 우천법학관 203호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외국인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날의 행사에는 중국, 독일,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 및 교직원이 참석하였다.

수업 및 학교생활 전반과 관련한 내용의 소개 이후 간단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자기소개를 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기업지배구조 콜로퀴움(GCGC) 참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콜롬비아, 옥스포드, 동경대 등 세계 유수의 명문법대들과 함께 세계기업지배구조 콜로퀴움(GCGC)을 발족하고, 2015년 6월 5일부터 이틀간 미국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참여하였다. GCGC는 전세계 12개 명문대학 및 ECGI 등 4곳의 협력기관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재무적, 법적 연구와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결성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GCGC의 집행부 임원인 김건식 교수를 비롯하여 송옥렬, 노혁준 교수가 참석하여 선별 초청된 각국의 석학 60여명과 기업재무 및 지배구조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2차 회의는 1년 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4학년도 법과대학 및 법학대학원 학위수여식



2014학년도 전기 법과대학 및 법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이 2015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원우 법학대학원장을 비롯하여 교수와 학부모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축하해주었다. 이재민 기획부원장의 사회로 김종보 교무부원장의 학사보고, 학위수여 및 시상, 졸업식사, 축사, 졸업생인사,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원우 원장은 졸업생 모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와 학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졸업을 축하하며 앞길을 축복하였다. 이어 김동건 법대 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서울법대 동창회의 일원이 된 것을 축하하며,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이웃과 연대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하였다.

문화관 대강당을 가득 메운 졸업생의 가족과 선·후배들의 축하 속에 학위수여식은 진행되었으며, 이 날 학위수여식에서 법학박사 5명, 법학석사 31명, 법학전문석사 128명, 법학사 64명 등 총 228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기념 특별강연회



2014년 11월 18일,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기념 특별강연회’가 있었다. 우리대학의 한인섭 교수가 학술연구상을 수상하여 ‘항일 변론과 인권변론의 지평’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조국 교수의 사회로 한인섭 교수의 특별 강연이 시작되었다.

한인섭 교수는 어려운 역사의 시기에 우리에게 긍정적 모델이 되어주는 인물들에 주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게 되었다며 단행본을 발간하기까지의 일화들을 이야기하였다. 1980년대 민주인권변론과 관련하여 홍성우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밤을 새워 집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이야기하였고, 역사적 자료를 통해 항일변론과 인권변론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기억을 보존하고 환기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이 작업에 함께 한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이어 홍성우 변호사가 자신이 보관하던 자료를 훌륭한 기록으로 만들어주신 한인섭 교수 이하 대학원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후배 변호사들이 사회정의의 실현과 인권보호에 관한 변호사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시설개선 공사



우리대학의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되었다. 15동 204호 전산실, 404호 정보검색실, 화장실, 72동 3층 열람실의 시설이 개선되었고, 15동 401호에는 열람이 신설되었다.

15동 204호 전산실에는 '바닥 전면 개보수, 벽면도색, 블라인드 교체, 천정텍스 일부 보수, 출입문 강화도어 교체, 컴퓨터용 책상 전면교체, 기타 장비보호(가림용)파티션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의 전산조교실 공간을 파티션으로 대체하여 학생들이 공간을 넓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404호 정보검색실도 리모델링 되었다. 15동 1층부터 4층까지의 화장실도 전면 개보수되었으며, 15동 401호 강의실은 74석 규모의 열람실로 구조가 변경되었다.

이번 시설 개선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 대학은 한층 높은 수준의 법학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서울법대 학부모 방문의 날



2015년 5월 16일,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서울법대 학부모 방문의 날’ 행사가 이원우 법학대학원장을 비롯한 교수들과 약 350명 학부모들의 큰 관심속에 성대하게 치러졌다.

서울대 음대 비바중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이원우 원장의 환영인사가 있었다. 이원우 원장은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현재의 교육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고,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와 학부모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학부모들에게 환영의 뜻을 전하였다.

교수소개에 이어 김종보 교무부원장이 학교의 교육목표, 역사, 시설 등 학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천경훈 학생부원장이 장학금, 외부활동지원, 학생상담지도 등의 학생복지와 교과과정, 실무수습 등의 학생생활, 졸업생 진로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학부모들은 실무수습 등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는 등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이어진 학교 투어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초청강연

정연아 네이버 법무실장 전문가 초청강연



2015년 3월 26일,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제2회 전문가 초청강연'이 열렸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전문가 초청강연에서는 정연아 네이버 법무실장이 사내변호사의 진로와 업무 등을 소개했다.

정연아 법무실장은 “사내변호사는 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법률문제와 이슈를 스스로 발견해 내고 같이 설계를 해나가는 형태”라며 업무 특성을 설명하며, IT분야의 사내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법리나 판례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분야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내변호사의 자질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같이 스며들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꼽았다. 이후 채용절차, 부서별 업무, 업무량, 입사 전에 필요한 경력 등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강연이 마무리 되었으며,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초청강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서울법대 초청강연이 2015년 5월 13일 ‘세상에서 제일 빠른 법률가가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우천관 203호에서 개최되었다.

최 위원장은 30여 년 간의 법률가로서의 삶,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 디지털 시대의 갖추어야할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며, 학생들에게 “법률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사자에 대한 배려, 법조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의 ‘경청’, 논리뿐만 아니라 경험에 대한 중시, 융합과 통섭의 자세 등을 기를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기능과 단말기 유통법,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대한 부응,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등을 토대로 법과대학 학생들이 앞으로 올바른 법률가로서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는 부탁을 전달하며 강연을 마무리 하였다.

Mike Feuer 미국 LA시 검사장(City Attorney) 특별 강연



2015년 5월 22일, 우천법학관 301호에서 Mike Feuer 미국 LA시 검사장이 'Los Angeles City Attorney Mike Feuer : Inside City Hall'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였다.

LA시 검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역점 사업에 대하여 강연하며 예비 법조인인 학생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독려했다. 또한 LA시의 특유의 City Attorney의 직무에 대하여 설명한 후, 역점 사업인 Restorative Justice Program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며 새로운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Mike Feuer 검사장은 학생들이 각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이날의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구태연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문가 초청강연



2015년 5월 13일, 우천법학관 203호에서 구태연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IoT 시대 법률가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3회 전문가 초청강연을 열었다.

구태연 변호사는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주는 여러 하이테크 기업의 성장 추세에 대하여 우버, 샤오미, 구글네스트 등을 사례로 들어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융합형 법조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ICT가 초래할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고 법률지식과 더불어 기술분야 등의 전문지식을 갖추어 대응하는 역량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에 친숙한 'Digital Native' 세대라 할 수 있기에 첨단기술문제를 법률적 언어로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진정한 Bilingual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강연을 마쳤다.

베트남 법원연수원 법관 초청강연



법과대학 서암홀에서 2015년 5월 22일 '베트남 법원연수원 법관 초청연수'의 일환으로 30여 명의 베트남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계정 교수가 강연을 맡아 서울대학교 및 법과대학을 소개하고 한국의 법학교육 제도 및 법관선발 제도 등을 설명했다.

이계정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법조인의 다양한 역할에 비추어 법조인의 교육 및 선발제도 역시 변화했음을 설명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연혁과 운영방식을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강연은 단편적인 제도 소개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법관 선발 및 교육제도 등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특히 베트남의 법관들은 한국에서 과거의 사법시험제도 이후에 새로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설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연극소·센터 소식

제2회 아시아·태평양 IP포럼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에서는 2014년 10월 1일과 2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 태평양 IP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의 IP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Patent Claims, Damages, Digital Copyright, Trade Dress, Trade Secret, IP and Competition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2014년 11월 7일 제11회 국제학술대회를 미국 하와이 메리어트호텔에서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Legal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Age of Big Data)' 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Fred H. Cate 교수(Indiana University)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Judith Rauhofer 교수(University of Edinburgh)가 '부질없이 정월 돌기? 빅데이터, 작은 정부 그리고 정보시대에서의 힘의 균형', Hans-Heinrich Trute 교수(Universität Hamburg)가 '빅데이터: 독일에서의 예비적 메모', 허성욱 교수(서울대학교)가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박윤규 과장(미래창조과학부)이 '빅데이터 정책방향'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였다.

아울러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2014년 11월 30일 저널 '경제규제와 법' 제7권 2호를 발행하였고, 2015년 5월 12일 'ICT 생태계 진화에 따른 방송통신시장 규제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45회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개성공단 법제화 개선방안

2014년 12월 19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최종길 홀에서 헌법·통일법센터(센터장 이효원 교수)에서 주최하고 통일부(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서 후원하는 '개성공단 법제화 개선방안' 을 개최하였다.

1세션에서는 '개성공단 법제의 개선과제' 라는 주제로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이 사회를 맡고, 이재민 서울대 교수가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수단의 구축' 을, 송진호 창원지방법원 판사가 '개성법체제의 합리화 방안' 을 발표하고, 이덕환 사법정책연구원 판사와 김태현 법무부 검사가 각각 토론을 하였다.

2세션에서는 '개성공단 법제의 비교법적 고찰' 이라는 주제로 이효원 센터장이 사회를 맡고, 강광문 서울대 교수가 '중국 경제특구 법제와 개성공단 법제의 비교' 를, 신유정 변호사가 '북한의 경제특구 법제와 개성공단 법제의 비교' 를 발표하고, 송인호 한동대 교수와 유성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변호사가 각각 토론을 하였다.



법과경제포럼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3일과 2015년 4월 14일 법과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주병기 교수는 'Fair Allocation of Disputed Properties'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이창민 교수는 '한국 법원의 대기업/횡령 사건 판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아울러 법과경제연구센터의 주관으로 '모바일 결제포럼'이 2015년 3월 30일과 4월 27일 개최되었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15년 2월 5일, 법과대학 17동 서암홀에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주관으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의 지평-새로운 방향의 모색' 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션1에서는 동아시아의 시각으로 아시아법연구소의 경험을 논했으며, 일본 대표로 나고야 대학의 강동국 교수, 중국 대표로 인민대학의 정상순 교수가 각각 발표를 하였다. 세션2에서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내용을 실무의 경험으로 발표하였으며, 동남아시아의 내용을 법무법인 율촌의 양은용 변호사, 중앙아시아의 내용을 법무법인 지평의 류혜정 변호사가 발표하였다.



제5회 모의국제상사중재경연대회



서울대학교 법의지배센터에서는 국제통상거래법센터와 공동으로 2015년 2월 14일 제5회 모의국제상사중재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경연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중재인협회, 한국중재학회와 국제거래법학회, (사)국제중재실무회, (사)대한상사중재원 및 국내 법조계를 대표하는 로펌들인 법무법인 광장,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양현, 법무법인 에이펙스, 법무법인 울촌,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법무법인(유)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에서 후원하였고, 10개의 국내 로스쿨 학생들이 영어 구두변론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 결과로 우승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The Advocacy 팀, 준우승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NU VIS MOOT 팀, 공동 3위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imba 팀과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Sophia 팀에게 돌아갔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무엇을 남겼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2015년 2월 25일 서울시 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무엇을 남겼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안경환(서울대 명예교수), 정진성(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하여, 1부에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무슨 일이 있었나?'를 주제로 문경란(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정재은(시민위원), 이하나(시민위원)의 발제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무엇을 남겼나'를 주제로 홍성수(숙명여대 교수), 이정은(성공회대 연구교수), 염형국(공감변호사) 등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어서 3부에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의의와 과제'에 대해 김현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의 발제가 있었으며, 종합토론에서는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준일(고려대 교수),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우은근(광주대 교수), 박홍순(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위원장) 등이 함께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제1회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시상식·기념강연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015년 3월 13일,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의 제1회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영준 교수 [수상논문: 최선노력조항(best efforts clause)의 해석, 제55권 제3호(2014)]를 선정하고 시상식 및 수상기념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법학연구소는 탁월한 연구를 수행한 학자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법학계의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고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을 제정하였다. 이 상은 매년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된 논문 중 해당년도 기준 만 50세 미만 또는 부교수 이하인 투고자의 글을 대상으로 추천에 이은 심사를 거쳐 수여하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글 중 주제의 창의성과 적실성, 연구관점의 참신성 및 연구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연구 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및 학계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2015년도 제1차 법정책 세미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2015년 4월 30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쟁점 II'이라는 주제로 제1차 법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선희 교수와 법무법인 광장의 이민호 변호사가 발표를 하였고, 법률사무소 이제의 권국현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종의 정중채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서남교 과장과 김연장 법률사무소의 서정 변호사가 발표를 하였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윤성운 변호사와 법무법인 울촌의 정성무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최고지도자과정 제21기 수료식



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제21기 수료식이 2015년 2월 2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2015년 3월 3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과정에는 법조인들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기업임원 등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참가하였으며, 40명이 수료하였다.

금융법무과정 제8기 수료식



서울법대 금융법무과정 제8기 수료식이 2015년 6월 1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도산법의 쟁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적, 경제적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그 동안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이론적,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이러한 일을 맡게 될 실무담당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개설되었으며, 총 등록생 31명 전원이 수료를 하였다.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제35기(공정거래법과정 제12기)수료식



서울법대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제35기(공정거래법과정 제12기) 수료식이 2015년 6월 12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과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로펌, 기업 및 유관단체에서 활동 중인 여러 전문가들이 수강하였고, 공정거래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수강생 총 52명 중 50명이 수료하였다.

발전기금 출연현황

2014년 11월 1일 - 2015년 6월 30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납입일	성명	납입액	지원단위	기금용도	납입일	성명	납입액	지원단위	기금용도	
2014-11-10	주창욱	30,000	법과대학	이디오피아장학	2015-02-26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4-11-10	서암학술장학재단	9,750,000	법과대학	장학	2015-03-02	ALP21기	30,000,000	법과대학	위임	
2014-11-24	법대 90학번	50,000,000	법과대학	위임	2015-03-02	한화증권	21,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4-11-26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5-03-10	주창욱	30,000	법과대학	장학	
2014-11-26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5-03-11	이원우	10,000,000	법과대학	위임	
2014-12-02	조현일	1,000,000	법과대학	학술	2015-03-23	한국도선사협회	30,000,000	법과대학	장학	
2014-12-05	ALP 20기	30,000,000	법과대학	위임	2015-03-25	법무법인 지평	3,000,000	법과대학	학생	
2014-12-10	박은정	5,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5-03-26	(유)도성개발	1,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4-12-24	안인희	30,000,000	법과대학	학술	2015-03-26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4-12-29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5-03-26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4-12-29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5-04-10	홍석조	10,000,000	법과대학	학생	
2014-12-31	법무법인 바른	150,000,000	법과대학	위임	2015-03-19	권영준	5,000,000	법과대학	학술	
2014-12-31	법무법인 바른	50,000,000	법과대학	위임	2015-03-20	이연현	5,000,000	법과대학	위임	
2015-01-14	송학린	21,506,204	법과대학	장학	2015-03-23	학봉장학회	10,000,000	법과대학	학술	
2015-01-27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5-04-10	(유)도성개발	1,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5-01-27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5-04-10	안인희	2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5-01-30	(주)한화건설	150,000,000	법과대학	시설물	2015-04-13	후원자	1,560,000	법과대학	위임	
2015-02-02	석광현	5,000,000	법과대학	장학	2015-04-13	서암학술장학재단	9,750,000	법과대학	장학	
2015-02-06	메가엔디(주)	2,000,000	법과대학	장학	2015-04-28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5-02-10	주창욱	30,000	법과대학	장학	2015-04-28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5-02-17	대한생명보험(주)	21,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5-05-11	(유)도성개발	1,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5-02-17	한화석유화학(주)	21,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5-05-27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5-02-23	(주)한화	21,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5-05-27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5-02-23	(주)한화갤러리아	21,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5-05-28	Eyagi CAFE	22,500,000	법과대학	장학	
2015-02-23	한화국토개발(주)	21,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5-06-01	WIPO	68,354,154	법과대학	장학	
2015-02-23	한화자산운용	21,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5-06-04	김장법률사무소	5,466,020	법과대학	위임	
2015-02-23	한화엘앤씨(주)	21,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5-06-10	(유)도성개발	1,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5-02-23	한화손해보험(주)	21,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5-06-12	김동건	10,000,000	법과대학	위임	
2015-02-24	(주)한화건설	21,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5-06-17	김원배	3,000,000	법과대학	위임	
2015-02-26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납입액 기간 합계							962,116,378			